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01.13-2019.02.03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Lagara College는 49 avenue에 위치한 제 기준으로는 큰 학교였습니다.                      (캐나다 학교 전체로 봤을때에는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학교 앞에는 버스 정거장도 있고 근처에 Lagara Station역(학교에서 걸어가면 7-8분)도 있어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시설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많은 학교였습니다. (학교 안에 카페도 있고 게임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도서관과 교실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부터 카페와 S건물에는 친구들과 같이 과제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첫 번째 주에는 캐나다에 관한 것에 대해 수업을 하십니다. 보통 캐나다 교통 이용 방법이나 캐나다 화폐, 캐나다와 관련한 용어 등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캐나다와 한국문화(동서양 문화)의 차이를 위주로 수업을 하시고 중간에 체험학습 활동 숙제를 검사하십니다. 마지막 주에는 보통 환경과 인류 봉사를 위주로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이외에도 중간에 홈스테이 가족들과 인터뷰, 체험학습 활동지 채우기, 일주일에 한번 씩 일기 써오기 등이 숙제로 주어집니다.(부담 없습니다. 거의 금방 합니다)                      수업은 순천향대 학생 15명과 한 반을 이루어 수업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둠을 이루어 활동을 합니다.(2명, 3명, 5명이서 유동적으로 모둠이 이루어지다 보니 거의 이 활동을 통해 친해집니다)                      수업준비는 학교 첫날에 주었던 책을 열심히 챙겨오고 주어진 숙제 열심히 하면 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학교에서 체험 학습으로 차원으로 가는 Vancouver Museum, Capilano Bridge, Aquarium 등은 학교에서 지불해주기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지만 Capilano Bridge와 Curling을 할 때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가시는 것을</p>

	<p>추천합니다. 특히 Curling 할 때에는 장갑도 챙겨주세요.</p> <p>그리고 학교에서 가는 장소 말고도 저는 보통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downtown에 가서 쇼핑하고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고 바다가 보고 싶으면 English Bay나 Stanley Park에 가서 자전거 대여해서 해변을 따라 자전거 타는 거 추천합니다.(자전거 대여 12달러정도) 정말 밴쿠버는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학교 끝나고 해변가 가면 노을이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p> <p>캐나다 어학연수를 가게 된다면 자연을 많이 보고 오고 오세요.(정말 많은 바다와 숲을 볼 수 있습니다.)</p> <p>추가로 야경이 아름다운 곳을 추천하자면 Canada Place 추천합니다. 바다 반대편으로 North Vancouver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예뻐요.</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밴쿠버의 겨울 날씨는 한국의 겨울 초 날씨였습니다. 밴쿠버의 겨울은 레인쿠버라고 해서 비가 자주 온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비가 오고 구름이 끼거나 하늘이 맑은 날이 많았습니다.(이건 갈 때 마다 다른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도 비가 올지 모르니 항상 학교 갈 때 우산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밴쿠버는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않는 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7-8시에 귀가를 했던 것 같아요.(너무 늦게 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해가지고 나서(겨울에 밴쿠버는 해가 5시 30분 쯤 지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인적이 드문 곳이나 homeless,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O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홈스테이 집 마음에 들었습니다. 홈스테이 부모님들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빨래나 욕실사용도 불편함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빨래, 욕실 사용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홈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근데 빨래는 아침이나 점심때 홈맘한테 문자로 오늘밤 빨래해도 되는지 여쭙보고 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O ) 외부식당 (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식사도 맛있게 먹은 날이 많았습니다. 홈스테이 아빠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저녁에는 갈비찜 특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은 그 전날 저녁에 먹은 음식을 먹을 만큼 떨어져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등교하기 전에 꺼내 Lunch box에 챙겨가서 점심때 학교에 전자렌지에</p>

	<p>데워서 먹었습니다. 저는 홈스테이에서 밥을 자주 해주셔서 다른 학생들보다 밥을 자주 먹었습니다. 보통 가정집들은 베이글이나 샌드위치 등을 먹습니다.</p> <p>그리고 저녁은 다른 학생들과 Downtown에 가서 외식했습니다.(그전에 오후 3-4시 전까지 홈맘한테 친구들과 저녁 먹고 들어간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홈스테이가족들과 저녁 먹는 것도 좋지만 3주라는 기간이 긴 시간은 아니기에 나가서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매주 일요일 저녁은 홈스테이 가족들과 보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밴쿠버 교통수단은 보통 버스와 skytrain(한국의 지하철), seabus(보통 노스밴쿠버 갈 때 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거리일 경우 버스를 탈 때 방향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구글맵이나 아이폰에 지도앱이 있으니 지도에 표시된 학교 가는 방향과 지금 위치에서 차가 지나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고 탑승하세요.(잘못 찾았다가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찾아가는 방법은 첫날 학교 갔을 때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지도로 그려오라는 숙제를 내주셔서 홈스테이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p> <p>Skytrain은 보통 학교 끝나고 개스타운이나 다운타운 등을 놀러갈 때 타게 되는데 한국보다 노선도가 단순해서(3개 노선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탈 수 있다면 캐나다 Skytrain은 문제없습니다.</p> <p>Seabus는 혹시 North Vancouver에 놀러가고 싶다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zone 2여서 교통카드에 돈 충전해야 합니다)</p> <p>추가로 Perry가 있는데 이건 친구들과 주말에 빅토리아 아일랜드(밴쿠버 남부 섬)갈 때 타게 됩니다.(한번 가는데 17.2 달러 비용이 추가 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619,5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발급	약 7,000원	출국 전 발급
교통 추가비용	약 4만원	교통카드 충전+페리 요금
외식	약 28만원	일주일 1-2번 제외 외식
선물	약 30만원	가족, 친구 선물
개인 용품	약 10만원	엽서나 생활용품, 간식 포함
합계	약 73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캐나다 가기 전 준비할 것을 개인적으로 정리 해봤습니다.

- ① 환전-환전은 근처 캐나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환전하면 됩니다. 보통 캐나다 달러는 미국달러, 유로처럼 주요 화폐가 아니다 보니 당일 환전이 안 될 겁니다. 환율 잘보고 신청해서 신청한 다음날 은행에서 받아주세요.(공항에서 환전 하는게 더 비싸다고 해서 저는 은행에서 했습니다.) 보통 60만원정도 환전 하고 나머지는 비자카드나 마스터 카드를 씁니다.(근데 거의 카드 쓰는 것 같습니다)
- ② 유심-인터넷에 캐나다 유심 검색하면 나옵니다. 기간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요. 구글에 검색하면 저렴한 유심 많으니 구글 추천합니다. 보통 5-6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주문은 일주일 좀 넉넉잡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4GB도 충분히 씁니다.(주로 길찾을 때 쓰고 학교나 홈스테이 집에는 와이파이 있으니 그걸로 써요)
- ③ 옷-캐나다 날씨가 매년마다 달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패딩 꼭 챙겨주세요.(저 가을 코트 챙겨가다가 한 번도 못 입었습니다.) 윗옷은 많이 챙겨갈수록 좋습니다. 바지도 많이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빨래를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챙기세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추우니 안에 입을 따뜻한 옷 많이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면양말도 꼭 챙기세요.(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잘 때 입을 옷 많이 챙겼습니다)
- ④ 캐리어- 캐리어는 2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갈 때 1개 가져갔다가 선물 너무 많이 사서 캐리어 하나 더 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캐리에 2개에 학교 다니면서 쓸 백팩과 주말에 downtown갈 때 쓸 솔더백이나 크로스백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 ⑤ 신발- 저는 부츠와 운동화 두 개 챙겼습니다. 학교에서 컬링이나 캐필라노 갈때에는 운동화를 신고 평소에는 부츠 신었습니다. 저는 신발은 2개 챙겨가는 것을 추천해요.
- ⑥ 멀티 어댑터- 캐나다는 한국과 쓰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챙겨 가야합니다. 근데 저는 혹시 몰라서 2개 가져갔어요.(역시나 가서 하루 만에 하나가 고장났더라구요. 다행히 나머지 한 개는 쪽 썼습니다.) 학교 안에 어댑터를 팔긴 하지만 비싸요.(8달러 정도 합니다.) 저는 구입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⑦ 동전지갑- 저는 챙겨갔는데 가서 잘 쓰고 왔습니다. 한국 돈과 캐나다 돈 분류해서 쓰려면 필요해요. 특히 캐나다는 동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큰돈을 쪼갤 때 동전 많이 생깁니다. 가서 사도됩니다. 개스타운이나 다운타운 등 기념품 파는 곳에 예쁜 동전 지갑 파는 곳 많습니다.
- ⑧ 홈스테이 선물- 홈스테이 선물 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김이나 마시는 차를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메일 보내서 여쭙보세요.
- ⑨ 그 외-개인이 쓰는 화장품이나 다이어리, 렌즈 등 챙기시고 꼭 여권 챙기세요. 학교에서 인쇄하라는 여권사본이나 eTA, 입학허가서, e-Ticket 인쇄하고 가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대비 가능해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라는 시간이 가기 전에는 긴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갔다 오면 정말 아쉬움이

만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밴쿠버가 한국보다 좋은 점을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깨끗한 공기인 것 같아요. 집 앞에 마당부터 울타리 까지 모두 풀이나 나무입니다. 밴쿠버에 가게 되는 기회가 온다면 꼭 맑은 공기 많이 마시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어학연수가 대학교 기숙사가 아닌 홈스테이다 보니 한국과 다른 가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도 생활도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익숙해집니다. 또한 홈스테이 가족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생활습관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은 부모님들의 교육방식과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사고방식도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스스로 느끼고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홈스테이 가정은 아버지가 집안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 모두 아침밥도 학교 Lunch box 챙기는 것도 숙제도 알아서 하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과 과일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말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느꼈지만 점점 할수록 눈치껏 잘 알아듣고 대답도 말로 안 될때는 어떤 것을 가리켜서 설명하거나 정 안될 때는 사전 찾아보면서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헤어지는 날이 아쉬웠고 아쉬웠기 때문에 인사도 먼저 하고 말도 먼저 걸었던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 홈스테이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는 제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제 생활 습관 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 대학생활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어학연수 가시는 학생 분들도 어학연수를 통해 홈스테이 가족들과 추억도 쌓고 그들의 생활습관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Downtown에서 브런치



Granville Island



Stanley Park



Stanley Park에서 자전거 타기



Victoria Island 국회의사당



Canada Place 야경